그리스도인의
미디어 담론 살찌우기

아름다운 기독청춘을 소개합니다!

청년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 교육 석사
국제신학대학원 M.Div.
미디어 교육가, 현 기독미디어아카데미 TA

기독교 안에서 가장 부족한 담론 중 하나가 미디어 담론이다. 미디어에 관해 한다는 이야기가 기껏해야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나올 때 상영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음란물이나 폭력물 같은 영상을 비판하거나, 대중가요 안에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아니면 성경인물이나 마틴 루터 같은 개신교 주요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 달라는게 대부분이다. 내가 미디어 전공자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위의 내용 중 하나를 묻는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담론은 모니터 활동이 대부분이고, 분명한 색깔의 기독교 영화를 찾거나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비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기독교 안에서의 미디어 담론이 지나치게 빈곤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매우 비겁한 자세이기도 하다. 천만 관객 시대, 스마트폰이 일상의 도구가 된 시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미 미디어가 개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시대에 과연 이 정도의 미디어 담론을 최선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미디어를 논의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자.

미디어 수용자의 개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매체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관계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수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의 영향을 받거나, 그 영향을 거부하기 위해 비판하는 일이 전부이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도래하면서 개념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에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 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독하거나,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현대의 수용자는 audience를 넘어서 reader, writer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시청자가 인기 드라마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인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수용자의 태도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대하는 자세는 회피하는 것도 아니요,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해석하고 변혁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컴퓨터 게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미디어는 악한 것이니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후 젊은 세대들은 지나치게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기독교인이 세상 문화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하며 여과 없이 수용했다. 하지만 두 입장 다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 들어온 미디어를 '낯설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성경의 세계관으로 미디어 환경을 분별 · 해석하고,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직접적으로 반 기독교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도 은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시킨다. 드라마 속에서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하는 식이다. 요즘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대부분이 여전히 평범한 여성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사랑과 성공, 행복을 거머쥔다는 '신데렐라 공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성에게 의존하고 남성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는 존재로 드라마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성은 우리의

'청년연단'은 기독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는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사고에 영향을 준다. 편견이 담긴 남성성과 여성성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광고들은 이미지 기호로 우리에게 소비의 욕망을 부추긴다. 상품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복'이나 '현명함', '성적 매력'과 같은 가치들을 담는다. 그래서 그 상품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현명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수많은 대중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이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로 바뀐다. 심지어 "소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와 같은 메시지로 확장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고, 남들과 차별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현대인들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비판 없이 시청하는 뉴스도 마찬가지이다. 뉴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듯하면서도, 사실 권력층의 이익과 같은 흥미성이나 자극성을 가미하여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 스타〉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신선한 음악과 역경을 이겨내는 휴먼스토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무한한 경쟁을 정당화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반 기독교적 메시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내용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구조를 보아야 한다**. 미디어가 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디어 안에 숨겨진 그 구조를 밖으로 드러내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지혜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기독교 안의 미디어 담론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등장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논의를 요구한다.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환경'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삶의 풍경에는 미디어가 모든 일상적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신체의 일부가 된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디어 담론이 모니터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디어가 내용이 아닌, 환경으로써 우리의 사고와 감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내용이 주는 영향보다 매체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맥루언의 명언–**"미디어는 메시지다."**–은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해 보인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와 실용성, 넓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주지만, 논리적 사고 능력과 깊은 사색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를 이해하려면 과거와 같이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환경 전체를 성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은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즉, 누구나 메시지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아닌, 힘없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음란하며 시끄럽고 의미 없는 콘텐츠들이 넘쳐 나는 이 시대에 양질의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야 하는 문화 명령을 수행할 자들이다. 그 일은 단순히 미디어 안에 담긴 반 기독교적 메시지를 비판하는 일을 넘어선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디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담은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생산해내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디어 담론이 이전보다 풍성해져야 한다. 부디 그 일이 우리 학교와 교회 안에서 시작되기를 꿈꿔 본다.